

새신자 목회

97 OMC 주제강의-4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가 싫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보기가 싫어서 교회에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있고 또 믿고 싶지만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것이지요. 기독교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문을 닫아버리게 한 것입니다.

최근에 다이아나가 죽었습니다. 온 세상이 떠들썩했습니다. 동시에 테레사 수녀가 죽었습니다. 부자에서부터 가난한 자까지 테레사의 죽음을 모르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테레사의 죽음과 다이아나의 죽음은 다 알지만 예수님의 죽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 비극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4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과연 죄인들을 위하여 문을 열어놓고 있는가? 예수 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인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설교하십니까?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교인들을 위해서 주로 설교하십니까? 아니면...아직도 예수그리스도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배려하면서 설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교회건물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한 건물입니까, 아니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배려해서 만든 건물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 버려진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들, 창녀들, 남편 다섯 있는 여자, 세리, 정신병자들, 미친사람들, 병자들...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교회는 영원히 문제가 있는 곳입니다. 항상 죄인들이, 미성숙한 자들이 오기 때문에 교회는 항상 싸우고 터지고 시끄럽습니다. 여기 흑석동에 후배 한분이 목회를 하는데 '친구들 교회'라고 합니다. 그 곳에 거지들을 위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1부에 4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거지들이 밥 먹으러 오는데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모르답니다. 교통비 3000원도 주는데, 서울에 있는 거지들이 다 주일만 되면 그 교회로 간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 듣고 은혜를 받았습시다. 그리고 2부는 본 교인들 20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온누리교회 건물을 이렇게 만들 줄 아십니까? 보시면 이 강대상, 소위 무대를 네 번 정도 바꿨습니다. 왜 이런 무대를 만들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하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위하여. 너무 종교적인 무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선 거부감을 느낍니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커피숍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 익숙한 공간이거든요. '성전' 그러면 그들이 두렵기도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죄인 같거든요. 오래 못 앉아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공간이 BOOK SHOP입니다. 예수 처음 믿는 사람, 어색한 사람들이 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제 목회철학입니다. 저희 교회는 카펫트를 깔았는데 새 건물에 가서 보시면 교회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 목적은 교회 같지 않은 건물 만드는 것입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는 교회 같은 건물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9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사회 모든 분위기가 달라져가면서 사람들은, 교회 같은 교회는 노인네나 가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국교회입니다. 제

가 지난번에 영국에 갔더니, 덴스레인 목사님이 유년주일학교 다니던 교회로 절 데리고 갔습니다. 고색창이 하나, 아주 좋은 건물이었는데 너무 답답해서 시꺼멓고 이상해서 들어가기도 싫었습니다. '이것 좀 확 뜯어가지고 고치지?' 그랬더니 historian들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정동채플은 못 고치지 않습니까? 문화재니까. 교회는 문화재가, 박물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디스코텍장으로 변하더라구요. 저는 그런 교회도 보았습니다. 팔려서 술집으로, 디스코텍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면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기능을 못하면 디스코텍 장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나이트클럽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우선 저는 제일 좋은 건물을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항은 불특정 다수가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전 공항 갈 때마다 설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그 곳, 조금 높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설교하면 기가 막히겠더라구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인을 위하여 존재해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죄인들을 위한, 그들을 초청하고 위로하는, 그들은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초신자들을 위한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을 위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그 사람들을 감동시킨다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 감동시키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에이! 당신이나 잘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교인은 감동하지 않습니다. 초신자들은 설교하면 감동합니다. 집에는 며느리가 있어야 합니다. 노인네들만 살면 재미가 없고 우울합니다. 아들이 장가가고 며느리가 들어와서 아기를 낳은 것입니다. 뻑뻑거리고 똥사고 오줌싸고..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그걸 닦으러 다니면서도 입이 이렇게 찢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 건강해지느냐? 죄인들이 있을 때, 초신자들이 있을 때, 뻑뻑거리고 사고치고...이런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싸우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싸웁니까? 싸우는 교회는 거의 보면 전도 안하는 교회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새신자가 없거든요. 새신자가 있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못 싸웁니다. 기신자들은 창피해서 싸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새신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새신자가 많은 방법은 간단하지요. 새신자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교회는 힘 있는 사람이 다 맘대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장로님하고 목사님 아닙니까? 장로님 목사님 나이들이 다 몇입니까? 목사님들은 좀 젊지만, 장로님들 나이가 몇입니까? 보통 평균... 50,60? 거의 60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교회 칼라를 누가 선택할까요? 장로님이 좋아하는 칼라를 선택하겠죠. 그러면 신세대들이 좋아할까요, 안할까요? 안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신세대는 오지 말라는 그 말입니다. 60대 되신 분들은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입니까?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변합니다. 안전주의로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모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실수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소리가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겠습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많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럼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안하면 되지요. 교회는 모험해야 합니다. 젊은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늙은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는 젊은 여자가 낳는 거예요. 교회는 젊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마음이 젊어야 합니다. 모험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합니다. 신세대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죠. 여러분의 나이에, 취향에 맞는 것을 하게 되면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지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은 10장 45정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존재목적은 섬기는데 있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곳이 자기 그라운드니까 그럴습니다. 누가 감히 내 영역을 침범하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이상되거나 수준있는 사람은 교회에 못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발로 차 버리거든요. 왜요? 자기영역이 무너지니까요. 자기 수준 정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여러분 이상의 목회는 안됩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수준 이상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목사님이 여러분보다 설교 잘 한다면 그 분에게 담임목사 줘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수준을 높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 역량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다 자기 그릇입니다. 그릇이 크면 물은 많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담아도 쏟아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 원망하지 마세요. 역량을 키우세요. 인격도 키우시고, 그릇도 키워야 많이 담길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존재목적은 성감을 받으려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은 성감을 받으려 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제곡이 있죠. '섬섭하다'라는 거... 왜 섬섭합니까? 자기 인정 안 했다는 겁니다. 자기 무시했다는 거죠. 간단합니다. 왜 이일 시켰다 저일 시켰다 그러냐? 왜 나 안 알아주냐? 이름은 왜 뒤에 빠졌냐? 전부 그런 얘기입니다. 별 거 없어요. 여러분! 섬섭하다는 것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성감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공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잊혀진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 이 교회에선 내 목소리가 커야 된다.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것입니다. 저희 교회요? 금년부터 당회를 바꿨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으십니다. 하지만 교회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모두 7명입니다. 다 맡겼어요. '당신이 결정하나 내가 결정하나 똑같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야만 결정이고,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는 일곱 분에게 당회 모든 결정권을 다 드렸습니다. 그분들이 결정하면 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난 이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번 축제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고 물었더니 교인들 섬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변소청소하고, 인사하고, 제일 은혜 받은 것이 할 일 없이 있는 것에서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사람도 안 오는데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내 하신 분 가운데 총장님 사모님도 계시고, 그렇게 허술해 보여도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다 굉장한 분들이 지금 저기 서 있는 겁니다. 그분들 다 휴가내고 직업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한가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다 바쁜 사람들이고 자기 전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번 기간에 다 뻥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그러고 왔습니다. 섬기는 걸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이분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섬기면서 제일 기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이 아니고 그들입니다. 교회는 뭐하기 위해 존재한다구요?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제일 보고 싶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안 싸우는 겁니다. '야~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한다... 저렇게 실수하는데도 용서하는구나' 그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법'입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공의로 왔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왔기에 우리가 산 것입니다. 정의감에 예민한 사람들 조심하세요. 정의로 따진다면 당신이 먼저 죽어야 됩니다. 당신이 말하는 정의에 당신이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정의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정의 외치지 마세요. 우리 대통령이 5년 동안 사정했습니다.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정하고 개혁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덮어줘야 합니다. 따지면 안 됩니다. 물은 흐르게 놔 두세요. 흙탕물 깨끗하게 만든다고 휘젓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그러면 10m가면 깨끗해 집니다. 교회 스캔들 생기면 떠들지 마세요. 여기 이 카페트에 누가 똥 샀는데 신문지로 덮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참 오래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똥 본 사람이 치우면 됩니다. 똥 가지고 세미나 하지 마세요. 이게 똥이냐 아니냐 똥 같다 아

니다. 이러면 뭐만 날까요? 냄새만 나죠. 그런데 그저께 김 집사님이 여기 근방에 온 것 같다. 그러면 교회의 김 집사에게 다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가만 놔두십시오. 따라해 보세요. 통과, 그냥 통과 시키세요. 다 통과 시키세요. 예수님만 붙잡으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삭개오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돈은 있지만 외로운 사람, 권력은 있지만 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람,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으론 약한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이해해줬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과 예수님이 만나는 것 자체도 자존심 상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은 만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이 있었지만 그 집에 간 것이지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잊혀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새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왔다 떠난 사람들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상처받고 실망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새사람이 오는 것이 떨어진 경우는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 옵니다. 문제는 계속 빠져서 그렇지, 새사람은 언제든지 옵니다. 전도 안 해도 옵니다. 그 사람들을 붙잡지 못한 게 문제인 것이지요. 또 하나, 그 사람들을 찾지 않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를 떠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설교일 수도 있습니다. 설교가 잘못돼서 설교가 듣기 싫어 간 사람도 있고, 사람 보기 싫어서 간 사람도 있고 뭔가 교회가 못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정직하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쳐야 합니다. 왜?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열정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더불어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양육이죠. 전도한 사람들을 어떻게 풍성한 꼴을 먹이고 살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교회죠. 성경은 하나님으로 한 마디로 말하면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것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탕자가 있죠. 진짜 탕자는 첫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과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첫째 아들 같습니다. 집 나간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그 집 나간 아들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잠을 못 주무시는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 밤마다 뜬 눈으로 세우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그 아들이 올지... 여러분! 큰 아들이 '아버지, 그놈의 자식 잊어 버리세요. 아버지의 돈 다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못된 자식 그게 아들입니까?' 그렇게 큰 아들이 말했다면 아버지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겠어요? '아버지, 그 자식 잊어 버리세요. 오늘 내가 아버지 위해서 못 한 벌 사 드립니다. 오늘 음식 같이 잡수십시오.' 그 때 아버지가 음식이 맛있을까요? 나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온누리 교회를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온누리 교회 5부 예배 보고도 그냥... '하나님, 우리 이렇게 집 잘 지었습니다. 5부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만명이 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정은 안 하실 거예요. '그래 맞다 좋다.' 좋다는 소리 크게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좋....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밤에 보면 십자가의 꽃이 핀 나라입니다. 저는 지하실에서, 상가 빌딩에서, 한 상가에 4, 5개 교회가 있는 걸 난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거 욕하지 마세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입니

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한국은 이렇게 교인이 많은데, 교회가 많은데, 한 빌딩에도 서너개가 있는데 일본에 가 보세요. 없어요. 교회 보기 어렵습니다. 동남 아시아에 가 보세요. 판자집도 없습니다. 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금년부터 우리교회 5부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줄긴 좋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 없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은 '동남아시아를 보라, 일본을 보라, 내 마음은 거기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은 거기 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아들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아버지~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다가 1억씩 들여서 광고합시다. 우리 아들 찾자고 아 이래야지 집 팔아 가지고 나갑시다. 이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이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말이죠, 제가 보니까 한 2,3년 지나면 가더라구요. 전통이 생깁니다. 50년 넘은 교회치고 부흥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전통 유지하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왜 대대로 예수 믿은 사람끼리 모여 예배드리는 겁니까? 새신자 오는 것도 귀찮아 하더라구요. 왜? 자기 전통을 깨니까. 새로운 분위기로 가는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는 이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오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혼자 지킬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안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Father's heart. 잃어버린 양. 우리 안에 있는 아흔 아홉 마리 양의 가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것입니다. 99는 1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습니다. 한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 한 영혼에 대한 눈물, 애통, 몸부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어떤 댓가를 치루어도 그걸 하자. 바로 이것입니다. 금년에 저희 교회가 열린 예배를 시작했는데. 시작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예산을 열린 예배에 많이 주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월로우 크릭 교회를 가면서 늘 마음에 감동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건 빌 하이בל스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슨 감동을 그렇게 주었는가? 그 양반이 기계같이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더라구요. 내내 안 울다가, 보통 때는 정신이 말뚱말뚱하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라는 말만 시작하면 눈물이 핑 돌아요. 코가 시큰해요. 그래서 항상 코를 탁 만지더라구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나? 주변에 별로 없어요. 전도 안 한다고 야단하는 목사는 있어도 전도하자고 소리 지르는 목사는 있어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목사는 없더라구요. 이것이 교회요,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로 한 것은 바로 이 눈물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예수 믿지 못해서 방황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죽어가는 한 영혼,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만 줬더라면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살았을텐데, 우리 교회가 저 사람한테 실족시키지만 않았더라면 저렇게 살지 않았을텐데, 우리 교회가 조금 무성의하고 부주의해서 한 영혼을 잃어버렸다면 말이죠, 여러분! 한 영혼을 잃어버리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것, 저는 월로우 크릭의 용기에 정말 감동을 합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그들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전통이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모험을 한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교회에 갔을 때, 감동적인 얘길 하나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20주년때 교인들이 큰 체육관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그들은 전지(전구)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대요.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이 끝나고 설교가 끝나고 불을 다 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월로우 크릭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불을 키십시오.' 85%가 그 불을 켜고 서로가 울었대요. 그 말을 전해 준 사람도 그 말할 때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구요. 85%가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른 교회 가도 된다' 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올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만 와라! 그 사람을 위한 목회를 하겠다! 그 사람을 위한 설교를 하겠다'

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겠다! 그런 사람을 위한 성경 공부를 만들겠다!' 는 하나의 신앙 고백이죠. 여기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동이 있더라구요. 제가 거기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줄 아십니까? 온누리 교회는 전도 안해도 사람이 오더라구요. 그래서 교인들이 전도의 심각성을 몰라. 전도 안 해도, 가만있어도 1년에 3500명이 문을 두드려요. 등록을 시도하는 사람이 한 3500명이예요. 7주 과정을 마치는 사람들이 보통 1500-1800명, 1년에 그렇게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회개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희박해져요. 누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역 현상이 있다고. 너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 귀한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월로우 크릭 교회에 가서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너 뭐하고 있냐?' 온누리 교회는 그러고 보니까 소문난 교회더라구요. 내용은 없더라구요. 우리는 가진 것 보다 소문난 게 많더라구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인 하나하나가 영혼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니까 부끄러워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없었던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온누리 교회는 부끄러운 교회입니다. 걸치장이 많은 교회입니다. 소문이 많은 교회입니다. 교인 하나하나가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그런 눈물이 우리는 없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는 보냈는데, 개인 전도를 많이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죠. 여러분 목사님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다 매일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요. 그래서 중요한 건 평신도들입니다. 평신도가 스타예요. 여러분! 농구 무대에서 뛰는 사람은 목사가 아닙니다. 평신도가 뛰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거든요. 그들이 세상을 변화 시킵니다.

두 번째 생각 할 주제는, 특별히 불신자에게도 관심을 갖지만, 교회는 구도자(seekers)에게 관심을 가져라. 불신자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도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른다든지, 교회에 대해서 아직도 부정적이라든지, 시험에 들었다든지 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교회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태도를 바꾸고, 조금만 말을 바꾸고, 조금만 설교를 바꾸고, 조금만 교회를 바꾸면 그들은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제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는 '교회는 맨날 현금만 하라 그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기분 나빠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할 것인가? 이것을 교회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전도'라는 생각입니다. 전도에 대한 교회의 관점에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빌리 그래함 같은 분들은 대중 전도, TV전도를 하신 분입니다. 우리나라 부흥회, 사경회도,, 부흥사들이 다 그런 분들이죠. 이렇게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런 전도 시절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mass evangelism이나 TV evangelism도 좋지만 '개인전도'가 중요하다. CCC나 네비게이토나 또는 브릿지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 전도하는 훈련이 한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저도 그렇게 훈련을 받고 자란 사람인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건 즉석 도너츠더라구요. 사람을 만나면 '5분만 시간 있습니까?'라고 한 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생애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모릅니까?' 그래서 '나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서 예수 믿으면, '당신에게 오늘 구원이 임했습니다. 내일부터 교회에 가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가는 것이지요. 참 좋은 전도법이죠. 저는 이 전도 프로그램으로 수지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예요. 자살하는 사람도 만나 봤구요(자살 직전에 있는 사람..) 별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 봤습니다. 그렇게 개인 전

도를 많이 한 때가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교회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제임스 케네디의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새로운 축복을 주셨는데 교회 안에 전도부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가 전도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세계를 뚫고 들어가는 교회의 모든 philosophy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전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당회나 교육부, 문화부, 전도부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전도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 죄인들을 위하여 교회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고 교회 예배도 그렇고 모든 것을 전도라는 것에 초점을 모아 가지고 목회를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진 교회들이 바로 seekers service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새들백이나 월로우 크릭들은 전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대를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도 전부 바꿔버려요. 누구를 위하여? seeker들을 위하여 그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도록! 여기에 초점을 모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에는 두 가지 전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즉석 전도가 있고, 생활 전도가 있는데 둘 다 필요합니다. 어떤 때에 우리는 즉석 전도법을 사용해서 정말 예수님의 오른 편 강도 같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하면서 정말 급하게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즉석 전도의 문제는 뭐냐하면 교회에 왔다가 쉽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하는 체제가 돼 있다면 이 분들이 오래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때 당시에는 흥분하고 예수를 믿었는데 그 다음에는 믿지 않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도 많지만 오는 것만큼 빠지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죠. 전도는 참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숙대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그 숙대 앞에 떡볶이 집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데.. 군인 둘이 여학생을 만나려고 왔더라고요. 한 사람은 술 취했고 한 사람은 말짱했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어요. 둘을 보니까, 술 먹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 같아서 말짱한 사람한테 찾아갔습니다. '혹시 한 10분정도 얘기할 시간 있으십니까?' '왜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4영리에 대해서 얘길 좀 하고 싶다고 했더니 '해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생애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주 점잖게 듣더라고요. 한참 듣는데, 몸을 자꾸 꼬아요. 그런데 술 먹고 술 주정하던 옆에 있는 사람이 '형씨 나도 들읍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짱말짱하던 사람이 '그래 네가 들어야 돼 네가' 그래서 상대가 바뀌었어요. 그 사람이 쭉욱 기도하는 데까지 갔어요. '내 기도를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리고 울먹울먹하면서 술 취해서 따라하더라고요. 그분이 '형씨~ 내가 술 먹어서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군대 가면 내가 꼭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그런 경험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한 자매님이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가 전도시킨 자매인데 아주 부끄러워하는 자매입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1시간 땀을 들여가지고 겨우 전도를 하는데 떠들떠들, 부끄럼이 많아서 얼굴이 빨개져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어떻게 영접했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에게 지친 사람인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 떠들떠들하는 게 그냥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말은 유창하게 안 해도 된다는 걸 제가 배웠습니다. 어떤 자매님은 전도를 하렸더니, 전도는 정말 못 하겠고 두 시간 후에 다 만나기로 했으니까 다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한잔먹고, 두 시간동안 음악 듣다 가면 시간 되니까. 그런데 자기 앞에 한 여자가 머리를 내린 채 우울하게 앉아 있더라고요. 한 시간 정도 있다가 '혹시 저 여자한테 전도나 해 볼까' 괜히 친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여자 옆에 접근을 했어요. '혹시 4영리에 대해서 들어본 일 있으십니까?' 가만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 얘길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해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은 했습니다. 다 끝날 때까지 듣더래요. 기도 영접을 하는데 울더래요. 한 참 울더니 핸드백에서 뭉 꺼내더래요. 내가 자살하려고 약방 30곳을 다니면서 마지막 약을 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으로부터 하나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약을 가져가세요.' 자매님이 그 약봉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 자매가 하는 말이 '내가 그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어떤 일을 결정할지 누가 알았겠냐'는 거죠. 이것이 즉석 전도입니다. 즉석 전도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즉석 전도는 참 좋은데 또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씨는 뿌렸는데 이게 어떻게 열매 맺고 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가 확인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요즘에 그 contagious evangelism이라고 하는 전도법입니다. 최성수 장로님이 집을 짓는데 몽골 사람을 썼다고 합니다. 6명. 전도 한 마디도 안하고 잘 해 줬다는 거예요. 참 해주고 저녁 일 끝나면 같이 밥도 먹고 그랬더니 6개월 지나니까 그 분들이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면 안돼요?' 그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데려갔고 그래서 다시 개인 전도를 시작했대요.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손들라고 그랬더니 다 들더래요. 다시 내리게 했대요. 군중 심리로 손들지 말라고. 그리고 개인, 개인 정말 당신 예수 영접하겠냐고 그랬더니 다 영접했대요. 그리고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다시 6명을 데리고 왔더래요. 이것이 생활 전도예요. 삶을 보여 줌으로 똬을 들이는 전도예요. 한 사람 영혼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즉석 도너츠를 만들지 않고 자꾸 똬을 들이는 거예요. 똬을 들이고, 똬을 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는 영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올 수 있는 교회가 seekers service 그러니까 seekers service 올 때는 파이프 오르간보다 드럼이 훨씬 낫죠. 편한 음악.. 자기들이 잘 알 수 있는데 들어보면 좋거든요. 거부감을 안 느끼거든요. 그런 음악, 그런 복장,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자꾸 오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게 하고 어느날 예수를 믿게 됐을 때 이 사람은 또 자기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똑같은 애정을 가지고 그런 회생과 헌신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 두 전도가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럴죠? 저희 교회의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스타일이 맞겠죠. 왜냐하면, 제가 즉석 전도법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자꾸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그 쪽하고 잘 맞지가 않더라구요. 하긴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아..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 전도가 맞구나. 교인의 구성이나 모든 조직이 여기하고 맞아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쪽으로 방향을 새롭게 강조하면서 시작한 것이 바로 생활 전도입니다. 전도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새신자 프로그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공동체의 한 식구로서 들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신자들의 문제는 결국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헌신할 때까지 교회의 기본은, 교회의 포인트는 거룩과 순결이에요. 그리고 교인의 포인트는 순종과 헌신,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순결해지나? 그 설교가, 그 목회자, 그 교제와 그 관계가 그리고 교인의 개인적인 삶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헌신하느냐, 거기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여기 오신 분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저희들 안에는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잡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해 드리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썼던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섬기러 오신 예수님,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그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